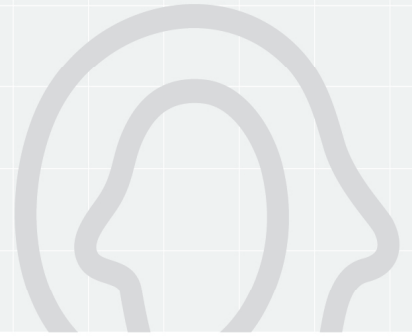


권두언

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권호장



어느 날 태양계를 돌고 있던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닥친 위험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사람들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방송은 우스갯거리로 소비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데만 열심이다. 심지어 혜성의 궤도를 변경하여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희귀 광물을 얻으려는 경제적 욕심 때문에 날려 보낸다. 영화 '돈룩업'에서는 기후라는 단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후위기를 대하는 우리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기후과학자들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1.1°C 가량 올라갔고, 이대로 방치해서 1.5°C 이상 상승하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기온의

변동폭도 같이 증가하여 기상이변이 잦아진다.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결성된 국제기구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1.5°C 상승하면 10년에 한 번 올 법한 규모의 폭염, 집중호우, 가뭄의 빈도가 각각 4.1배, 1.5배, 2.0배 늘어나서 기상이변이 일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IPCC, 2021). 이런 징후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에만 유럽과 서남아시아의 폭염, 파키스탄의 대홍수 등 세계 각지에서 역대급 기상이변이 속출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2018년 최악의 폭염, 2020년 최장 장마를 경험했고, 2022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다.

기후위기는 건강위기로 바로 이어진다. 폭염, 태풍, 집중호우, 산불, 가뭄 같은 기상재해는 직접적

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기 질, 수질, 농지, 사회기반시설, 생태계 파괴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폭염의 영향이다. 2003년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폭염으로 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산불로 인한 숲의 대규모 소실, 물 생태계에 대한 영향, 정전, 수송 제한, 농업생산 저하 등의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130억 유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UNEP, 2003).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 이래 최악으로 평가받는 2018년 폭염 때는 열사병 사망자 48명을 포함하여 열탈진,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이 4526명 신고되었고, 열사병 외에 심혈관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804명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질병관리청, 2022). 한국전쟁 이래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폭염처럼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후변화는 대기질, 수질, 식품위생 등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요소들을 악화시켜 건강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보건 의료기본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1차로 폭염 외에도 오존과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 그리고 법정감염병과 설사 질환에 대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통해 폭염 피해뿐만 아니라 기온 상승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오존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다는 것과 기온이 상승할수록 세균성 설사 질환이 증가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지만 건강 피해가 균등하게 분포하지는 않는다. 먼저 산업화를 이루고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선진국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는 저개발국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 나라 안에서도 피해는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폭염이 왔을 때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 에어컨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기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 노약자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개인적 특성 외에 지리적 위치(해안 또는 분지), 보건 의료 접근성, 사회기반 시설, 지역사회 대응 능력 등에 따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는 증폭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는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평가해서 낮춰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지역균형발전, 노약자 배려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곧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 문제이다. 기상재난의 생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을 위험이 커지고, 기후변화로 정신건강의 중요한 위험 요인인 사회경제적 수준이 악화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정신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점증하는 기후위기를 보면서 불안, 공포, 슬픔, 절망, 고립무원감 등 강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후불안(climate change anxiety), 솔라스탈지어(solastalgia), 생태적슬픔(ecological grief) 등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WHO, 2022). 이런 정서 반응의 기전과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기후위기의 규모로 볼 때 이런 정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마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규모의 일이라 개인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 행동에서 비롯된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결국 인간의 행동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 자가용 이용 대신 걷거나 자전거 타기 같은 능동적 이동,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 소비, 육식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등은 우리에게 익숙한 친환경 생활들이다.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행동은 대기환경 개선, 신체 활동 증가, 포화지방산 섭취 감소 등 건강 증진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기후 친화적인 정치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

이 국정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의 생각이 기후 친화적으로 바뀌면 정치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 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는 탄소문명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화 '돈룩업'에서 지구 멸망의 순간 마지막 만찬에서 혜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과학자는 우리가 노력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너무 늦지 않은 지금 행동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22).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790387-000557-01
- IPCC. (2021). *Summary for Policymakers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03). *Impacts of Summer 2003 Heat Wave in Europe* - Environment Alert Bulletin 2. <https://wedocs.unep.org/20.500.11822/40942>. 2023.6.20.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Mental health and Climate Change: Policy Brief*.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45125>. 2023.6.20.